

# ‘정인이 학대’ 반박못한 입양모... 살인 혐의엔 적극 대응?

###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나온 2차 공판 신문

### 학대 관련 증언...檢은 적극·변호인은 차분

### 학대 인정하는 분위기...‘치사·살인’이 쟁점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만큼 입양부모 측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관심이 간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2차 공판에선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나와 학대 의심 정황을 증언했는데, 입양부모 측 변호인은 그다지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다만 ‘살인 고의’ 관련 내용을 다룰 법의학자 등이 증언으로 나오는 다음 공판에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7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담임교사 C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지난해 3월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까지의 정

인이 모습과 학대를 의심했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B씨와 C씨 등은 당시 증언을 이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거나 오열하는 등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그런 증인들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긴 정인이 모습 등을 물었고 신문 시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입양부모 변호인은 신문 시간이 짧고, 검찰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진행되는 반대신문에서의 질문도 적었다. 사실상 ‘반격’이라고 할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변호인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치사’는 부인하지만, 아동학대는 인정한다는 취지다.

B씨와 C씨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은 이들이 과거 정인의 상처를 발견했을 때 입양부모

가 했다는 주장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검찰 측 신문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B씨에게 정인이 외에 등원 안 하는 아이가 더 있었는지 물었고, B씨는 “2·3명 정도 더 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B씨는 “정인이네 반 아이 3명 중에서는 정인이만 안 나왔다”고 답해 변호인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정인이가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9월, 심하게 마르고 걷지 못해 원장이 장씨 등의 없이 병원에 데려간 일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데려간 것 자체가 아니라 말도 안 하고 데려간 부분을 항의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B씨는 이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제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말 안하고 병원 데려가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었고, B씨도 여기에 동의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께 허벅지 멍에 대해 양부가 베이비 마사지를 해줬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했고, C씨에게 정인이 사망 전날 양모가 독감주사로 인해 정인이가 열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냐는 질문도 했다. 여기에 대해 C씨는 “맞다”고 답했다. 정인은 지난해 10월11일 소아과에서 독감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인에게 생겼던 상처에 대한 입양부모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지만, 학대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검찰 측 신문 방향에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학대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별다른 반박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다만 정인의 부검 감정이나 사망원인 감정 관련 증인이 출석하는 오는 3월17일 3차 공판에서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속적 학대로 약해진 정인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장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바닥에 넘어진 정인의 복부를 장씨가 밟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관철하려면 사망 원인이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법의학자 등은 중요한 증인이 된다. 반대로 살인의 고의성, 학대로 인한 사망 등을 부인하기 위해 이들의 설명을 적극 반박해야 하는 변호인에게도 이들은 중요한 증인이 된다. 오유나기자

## 함평군, 방역지침 위반 조류독감 발생농장에 과태료

### CCTV 오작동·방역복 재사용·교육 미이수 3건 300만원



함평군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기로 결정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함평한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발생 농장 포함 반경 3km 내 가금농장 7농가 32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30일 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 농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 TV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방역복을 재사용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았다.

함평군은 방역수칙 위반 3건에 대해 1건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km 내에서 1km로 축소했으며, 발생 농장과 동일한 축종에 대해서만 살처분키로 지침을 완화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재정 뿐 아니라 인근 농가의 피해 또한 큰 만큼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요구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방역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화장실 강간미수’ 30대 법원공무원 구속

### 50분 구속영장 심사...“피해자에 죄송”

###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혐의

### 여성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심사가 22일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한 듯 심사시간보다 4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50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혐의 인정하

나’, ‘어떤 취지로 소명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정장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점퍼를 걸친 채 법원청사를 나섰다. 이후 굵은 표정으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전망이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오전 10시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